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복음 나누기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루카 9,17)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발표합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루카 9,11ㄴ-17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 9, 1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 13 예수님께서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하고 말하였다.
-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특별히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면서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성체성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신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린 말씀(22,14~20)이 더 어울리지만 복음

말씀은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맞이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십니다.(11절) 예수님 시대의 군중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참으로 오래전부터 절대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충분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로 부각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군중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매순간 복음을 읽으면서 느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직도 죽어서 갈 수 있는 아득하고 먼 나라의 얘기입니까? 하지만 하느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태 6,10)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곧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하고 믿는다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 그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막연한 말씀으로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지요. 오늘처럼 당신이 직접 군중을 맞이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필요한 것들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습에서 무조건적인 퍼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서의 간절한 요청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서는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다음 장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음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장정만도 오천 명이 되는)이 모인 장소는 집이나 음식점이 있는 곳이 아닌 황량한 장소(12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12절)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이 제안에 전 후 사정을 묻지도 않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13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예수님의 제안에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내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가지고 있는 적은 빵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누어 주어라.”(16절)

두 사람 정도 나누어 주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최소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소명은 바로 이 한계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내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는 것, 능력, 재력 등 나의 한계점을 내어 놓고 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권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믿음에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인간의 바람과 희망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어 놓은 제자들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찾고 성당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몸이 성체성사를 통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던 기적이 지금까지 믿는 이들에게 살과 피가 되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묵상나누기**

(말씀 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특별히 체험 발표를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 *일상 안에서의 작은 나눔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 주십시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